

성령으로의 세례

성경적 근거와 오늘날을 위한 이것의 의미

박 도 호 교수

이 글에서 우리는 “성령으로의 세례”의 교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 교리에 대해서 오늘날 주장되어지고 있는 열 가지 정도의 견해 중에서 여섯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전통적 개혁주의의 견해

이것은 존 칼빈(John Calvin), 헤르만 바빙크(H. Bavink) 그리고 존 머레이(John Murray)의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성령으로의 세례는 오순절 사건과 더불어서 왔지만,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실상, 성령으로의 세례는 모든 기독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중생의 역사와 최초의 성화의 부분으로 보여질 수 있다. 성령의 세례는 기독인의 삶에 있어서 시작의 일부분이다. 모든 기독인은 예외없이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아 왔다.(복음서, 사도행전, 바울 서신의

글에서)

2) 수정된 개혁주의의 견해

이 견해에 의하면, 복음서(마태, 마가, 누가, 요한)와 사도행전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성령으로의 세례”的 용어는 오로지 오순절날(행 2장) 성령의 오심에만 적용되고 있다. 사도행전에서 그밖의 성령의 “오심들”은 “성령으로의 세례”가 아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기독인들이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본보기들을 위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볼 이유가 없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 12:13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성령으로의 세례”란 용어를 중생과 기독인의 삶의 시작에 적용시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바울이 표현한 용어에서 예외없이 모든 기독인들은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아 왔다. 이 견해는 고신대학과 대학원 교수 요원에 의해서 제출된 최근 교수 보고서에 나타난 것이다.

3) 웨슬리안의 견해

이 견해에 따르면, 모든 기독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두 가지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은 칭의(회심)와 성화이다. 성화는 특정한 경험, 곧 성령으로의 세례인데 이것에 의하여 우리가 사랑 안에 완전해지고 더 이상 범죄치 않는 힘을 가진다. 이것은 특정한 경험이지만 특별한 표적들(Signs : 방언으로 말하는 것 등)을 동반하지 않는다. 기독인들은 두 무리로 분류될 수 있다. 즉 단순히 칭의받은 자들과, 칭의와 성화받은 자들이다. 이 웨슬리안 견해가 알미니안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성화된”(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은) 후에라 할지라도 떨어져 나가 지옥으로 갈 수 있음을 주장한다.

4) 수정된 웨슬리안의 견해

이것은 마틴 로이드 존즈(M. Lloyd-Jones)와 다른 이들의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기독인들은 구원 받기 위하여 단 하나의 경험, 즉 칭의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모든 기독인들은 구원의 확실성과, 기독인의 삶을 살기 위한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것이 ‘성령으로의 세례’이다. 이것은 특정한 경험인데, 이 경험에 의해서 사랑과 행복을 느끼지만, 이것을 동반하여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표적들(방언 등)은 없다. 기독인들은 두 무리로 분류될 수 있다. 즉 칭의 받은 자들과 칭의받고 확신받은 (능력으로) 자들이다. 견해는 칼빈주의 구원관에 기초를 두고 있어서 칭의받은 모든 사람은 택자이기에 떨어져 나갈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전통적 개혁주의의 견해에 대한 거부이다.

5) 고전적 오순절파의 견해

이 입장에 따르다면, 모든 기독인들은 구원받기 위하여 단 하나의 경험, 즉 중생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모든 기독인들은 중거를 위한 능력과 성도의 삶을 위한 능력을 가지기 위하여 두 번째의 경험인 “성령으로의 세례”를 필요로 한다. 이 “성령으로의 세례”는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받았던 것과 동일한 것이며, 이것을 받은 정상적인 표적이 “방언으로 밀하기”이다. 예언과 같은 다른 초자연적인 표적이 이 세례에 동반될 수 있으나, “방언”은 통상적인 표적이다. 성화는 두 번째의 경험이 아니고 회심 후에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다. 기독인들은 두 무리로 분류될 수 있다. 즉 칭의받은(어느 정도의 성화도 가진) 자들과 칭의받고 능력을 부여받아(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음) 성화 중에 성숙해가는 자들이다.

6) 수정된 오순절파의 견해

이것은 주로 소위 말하는 바, 카리스마적 운동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기독인들이란 세례 혹은 회심을 통한 신자들이다 (로마 가톨릭 교도들은 세례를, 대부분의 신교도들은 회심을 강조한다). 칭의의 의미는 이슈가 아니다. 모든 기독인들은 성령으로의 세례에 의하여 “그들의 세례를 완전하게” 하거나(로마 가톨릭의 관점), 또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대부분의 신교도들).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 세례의 표식이 방언으로 말하기이다. 카리스마적 운동의 구원에 관해서는 일치성이 없다. 어떤 신학자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될 수 있다고 믿는 자유주의자들이다. 이 여섯 가지 견해판 중에서, 나는 단지 1)과 2)를 성경에 근거하여 채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1)인 전통적 개혁주의의 견해를 2)인 수정된 개혁주의의 견해보다 나은 것으로 생각한다.

1. 성경적 배경

성경의 “성령으로의 세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성경 모두를 살펴보아야 한다. 성경은 통일체이며 전개된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역사적인 이야기이다. 성경은 구원의 동일한 길(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서)인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는 발전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언약이 세워지고 완성으로 실행되는 길 안에서 보게 된다. 또한 우리는 구속의 역사와 언약의 진전에 결속되어 있는 성령의 사역 안에서 통일과 발전을 보는 것이다.

A. 구속의 역사

성경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까지” 확장된 하나님의 통일체이다(계 21:1 : 사 65:17). 성령으로 영감된 성경은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이것의 어두운 상반자인 심판의 역사와 아울러). 성경의 주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의 인격과 사역이다. 구약성경에서 우리는 그 분의 오심에 대한 예비를 보게 되고, 신약에서는 그분의 오심과 새 시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의 시작을 본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제를 가지는데, 그것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그 분 홀로만 통하여 온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20:30, 31에는 성경과 구속사의 모든 것에 대한 주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위대한 일련의 구속적 “표적들”(signs)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속적 사건들을 가리킨다. 구약성경에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해방은 홍해가 갈라짐의 기적적인 표적을 통하여서 성취된다. 홍해가 갈라짐,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나감은 구속적인 사건인 동시에 기적적이며 계시적인 표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구원을 동반하고 있는 계시를 본다. 구약성경의 완성으로서의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의 계시와 구속을 이행하고 있다. 신약성경은 구원에 대한 축하와 선언이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서 발견된다. 중요한 것으로서, 이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구원인 것이다. “예수의 이름 안에 생명”(위에서 언급한 요 20:30, 31)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교제 가운데 있는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 이 구원론적이며 기독론적이고 역사적–구속적인 성경의 성격은 바빙크(H. Bavink), 스키더(K. Schilder), 리델보스(H. Ridderbos), 보스(G. Vos) 그리고 가芬(R. Gaffin)과 같은 개혁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설명되어 왔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논할 때에 항상 기억될 만하다.

B. 언약의 역사

언약은 성경 메시지의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위한 용어들이 이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언약”으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약은 구속의 역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노아(창 6:18; 9:1-17), 아브라함(창 12:2, 3:15장; 17:1-14), 모세(출 2:24; 19:5; 24:8—여기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피”를 뿌린다. 34:10). 그리고 다윗(시 89:3, 4)에 관한 기사 가운데서 본다. 은혜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시고, 저주로써 위협하신다. 축복은 순종 위에, 하나님

의 저주는 불순종 위에 임한다(신 28장). 드디어 때가 차매 언약이 이행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세워진다. 그리스도는십자가상에서 그의 회생에 의하여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다. 마태복음 26:28에 있는 최후의 만찬에서, 그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tēs kainēs diathēkēs)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 언약의 의미심장함을 상세하게 반영하고 있다.(히 7,8장)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에서,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mispechoth ha, edamah)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신다(창 12:3). 이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그리스도는 자신을 회생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 이방인을 향한 축복(롬 15:8-21)은 이 언약적인 약속 가운데 그 기초를 가진다.

모세에게 주어진 언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배 기간 후에 그 땅으로 장차 귀환할 것을 약속하신다(신 30:1-15). 언약의 약속과 일치하여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귀환과 갱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데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회복시켜 주신다. 로마서 9:27, 28에서 우리는 특별히 이사야 10:22, 23을 인용한 “남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본다.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to kataleimma sothēsetai)” 이리하여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한 약속을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심으로(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하심으로서(모세에게 한 약속) 성취하신 것이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어진다. 우리는 로마서 9:24에서 그리스도가 구원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주시는 것을, 그리고 에베소서 2:11-18에서 하나님이 “둘로 하나”를 만드신(14절) 것을 읽는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종국적이며 완전한 전 우주의 구속을 기다린다. (롬 8:18-21)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위한 언약적 약속이 오시는 메시야를 대망하는 가운데 구약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방인에 관해서는, 예언자들이 이방인을 위하여 미래에 있는 축복을 예언할 때에, 이 말씀들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된 그 초기의 언약적인 말씀과 관계되고 있음이 틀림없다. 예를 들면, 이사야 56장에서 이사야는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6절) 구원받을 것이라고 선포한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7절).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워질 것이다(7절). 게다가 이것은 이스라엘의 유배로부터의 귀환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8절)

유대인과 이방인은 메시야의 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함께 모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즉 새로운 언약적 공동체의 형성은 구약의 예언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측되고 묘사되어진다. 많은 곳에서 성령(종종 “영, Spirit, ruach”로 불리운다)의 사역이 강조된다. 그러나 우리가 새 언약의 시대에 성령의 활동을 살펴보기 전에 그의 사역이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무엇이었는가를 보도록 하자.

C. 구약에서의 성령의 사역

성령의 다양한 활동 가운데서 우리는 중요한 것 여섯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처음 창조의 사역, 계속적인 생명을 창조하시는 사역,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사역, 왕과 다른 직분자에게 기름 부으시는 사역,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주하시는 사역, 죄를 깨끗케 하시는 사역.

① 성령과 처음 창조

창세기 1 : 2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읽는다.

히브리어 : *weruach elohim merachepheth al-penē hammayim*…

헬라어(70인역) : …*kai pneuma theou epephereto epano tou hudatos*.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ruach elohim*에 대한 적절한 번역과 해석은 논쟁의 문제가 되었다. 자유주의 주석자들은 “격렬한 폭풍, violent storm”(라드, 창세기 주석, 1972⁹), 또는 “하나님의 바람, God's wind”(C. 웨스트만, 창세기 주석, 1966, 영역 1984)을 더 좋아한다. 웨스트만의 번역은 “…그리고 하나님의 폭풍이 수면 위에 움직였다”(p. 107)이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빈약하다. 웨스트만의 주안점은 바람이 창조기사에서 역할하는 수준이나 애굽의 우주론과 서로 같은 것으로 보인다(영역본, p. 108). 그런데 B.S. Childs(웨스트만의 인용, 영역본, p. 107)과 J. Skinner(ICC 창세기 주석, 1930², p.17)과 같은 다른 자유주의자들은 이 말을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으로 번역하면서 정통적 주석가들과 함께 한다. 아래의 주석가들은 “하나님의 영, Spirit of God(대문자 S)으로 기록한다. G. Ch. Aalders(단편주석, 창세기 <화란어>1933, p. 82), C. F. Keil and F. Delitzsch(창세기 주석, 영역본, 1973, p. 49), D. Kidner(창세기 주석, 1967, p. 45), H. C. Leupold(창세기 주석, p. 49—여기에서 그는 소문자로 기록한 “spirit”를 배격한다), W. H. Gispen(창세기 주석 <화란어>, 1974, p.44). Gispen은 “하나님의 호흡, God's breath”을 좋아하는 자들(N. H. Ridderbos, B. Jongeling, Dasberg)을 인용하지만 “영, Spirit”을 택한다. 일찍이 “바람”이란 해석이 Theodoret, I. Ezra, Targum-Onkelos에 의해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팔레스틴 탈굼은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으로 기록한다. “하나님의 바람”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영”을 찬성하는 주장은 구약에 있는 용법이고, 보다 풍부한 신약의 계시이다. 구약에 있는 용법은 다른 관점인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Yahweh)에 있다.

몇 가지 예

—출 31 : 3 “하나님(elohim)의 신(the Spirit of God)을 그(Bezaleel)에게 충만하게 하여”

—삿 3 : 10 “여호와(Yahweh)의 신(the Spirit of the Lord)이 그(Othniel)에게 임하셨으므로”

—사 11 : 2 “여호와의 신이 그(메시야) 위에 강림하시리니”

웨스터만은 *ruach elohim*이 *rachaf* 동사와 더불어 결코 다시 발견되지 않으므로 “바람”(Wind)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영역본, p. 107). 그러나 *rachaf*이 구약성경에 오직 세 번만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의 용법으로서는 논의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 번역에 대하여 오직 가능한 예외는 육기 27 : 3로 보이는 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기보다 “호흡”이 나의 코에 있다라고 번역될 수 있다. 우리는 결론으로서 창세기 1 : 2은 시편 51 : 11에서 불리워질 것같이 영, 성령을 지시한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하다. 성령은 창조에 있었으므로 창조에 활동하셨다. 우리는 플라톤주의와 영지주의가했던 것처럼 물질세계를 성령에 대조시킬 수 없다. 창조된 세계는 성령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된 세계가 본질적으로 성령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마치 예술이 예술가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처럼, 창조는 성령의 정신을 반영한다.

② 계속적인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으로서의 성령

시편 104 : 30을 읽으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모든 동물들)를 창조하신지를 새롭게 하시나이다”인데, 여러 주석가들에 의한 다음과 같은 주석을 들어본다.

—C. A. Briggs(시편의 책 Vol. 2, 1907)는 이 구절을, 하나님이 첫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창세기 2 : 7과 연결시킨다.

“…신령한 영이…생령을 창조물에 불어 넣는다.”(p. 336)

— F. Delitzsch(시편의 성경적 주석, 연대 없음)는 30절을 주석한다. “모든 창조물의 생령은 성령의 중재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이 성령은 최초의 (primordial) 물에 떠다니며 혼돈을 질서 가운데로 변형시키신 분이다.”(pp. 106, 107)

— A. F. Kirkpatrick, (시편의 책 1902)는 “그러나 사망이 아닌 생명이 자연을 다스린다. 새 세대는 옛 세대를 대신한다. 창조는 계속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영구히 보내시며, 신선한 생명으로 지구의 지면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다.”(p. 612)

— L. Sabourin(시편, 1974)은 창세기 1장과 이 본문의 관련성을 의심하면서 표준적인 자유주의의 해석을 준다. “창세기의 창조기사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기초를 이루는 오래된 이스라엘의 전통이 시편 104편의 저자를 고취시킨 것 같다.”(p. 184)

— J. A. Alexander(시편, Vol 3, 1850)는 30절 후반부를 흥수 후의 시대와 관련시킨다. “후반부에는 흥수에 의해서 황폐화된 땅의 회복과, 다시 사람이 거주할 때 땅의 표면이나 양상의 반가운(joyous) 변화에 대한 명백한 암시가 있다.”(p. 44)

— H.-J. Kraus(시편, 2부. 1961)는 Gunkel을 따라 시편을 분류하면서, 이것을 “개인의 노래”라고 일컫는다. “이 광대한 노래는 한 개인의 찬양의 종류에 속한다.” 이것의 주제는 여호와의 창조이다. “Thema des Hymmus ist die Schöpfung Jahwes.”

27절에서 30절까지는 모든 것이 그에게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 달려있다”(p. 708). 성령에 관한 한, Kraus는 그를 하나님의 창조적인 잠재력(그의 인격을 부인함)으로 부른다. “시편 104편에서 그 생명의 힘은 여호와께로부터 보내어진 창조적인 잠재력인 ruach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를 알리는 동사인 bara(비교, 창 1:1)가 있다. “…모든 창조물은 여호와의 창조적인 능력과 그의 새롭게 하시는 섭리와 역사에 의존하여 산다.”(p. 714)

— H. C. Leupold(시편의 주석, 1959)는 29절(동물의 죽음)과 30절을

주석한다. “이 모든 것들은 그의 호의에 의해서 산다. 만약 그가 호의를 감추시면, 그들은 공포에 떨고, 그들의 숨은 끊어지게 되며,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반면에 그의 성령의 능력은 동물의 생명을 재창조해 내고, 이와 같이 생물들의 새로운 세대가 땅위에 나타나며, 이 전체의 현상은 새로워진다. 이것들은 그들 자신의 능력 안에서 지속되는 자연적인 과정들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하시며, 이와 같은 수준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의 사역에서 제외되고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p. 730)

우리는 모든 주석가들이, 성령은 동물세계의 계속되는 생명에 적극적으로 개입되었다고 보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성령은 죄와 사망에도 불구하고 그의 창조에 창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신다. 죄와 사망은 저주의 한 부분으로서 계속적으로 생명을 파멸하지만, 성령은 새 생명을 존재케 하시는 일에 계속해서 종사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다. 성령은 단순히 처음 창조자가 아니다. 그는 바로 지금도 계속하여 창조하고 있다. 그의 삼위일체의 특정한 제 3 자로서 단순히 “존재론적으로”(Ontologically) 있는 것아니다. 그는 창조자 영으로서 “실용적으로”(economically) 존재한다. 우리는 날마다 “자연”的 세계 안에서 그의 역사를 본다.

③ 성령과 예언

이것은 성령에 관하여 구약 계시의 가장 두드러진 양상 중에 하나이다. 모든 진실한 예언자들은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예언한다. 그가 “그들 위에 임하고”, 그들에게 말하도록 말씀을 주며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그들에게 힘을 부여한다.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를 선포하거나 오는 심판을 직면하여 회개를 요구하거나 미래를 예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포함한다.

출애굽기 11:17, 25, 29은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그의 영을 취하여 “70인 장로들 위에 두셨는데”, 그들이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보여준다(17절). 25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the Spirit)을 70인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그들 위에 임하신 때에(Kenoach elēhem),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wayitnabbeu, Hit, of naba) 다시는 아니하였다”인데, 이 서술에서 그들이 무엇을 말했는지는 정확하게 분명치 않다. 어쨌든 그들이 예언을 하였다는 사실은 성령이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임했다는 증거였다. 그 다음에 모세는 29절에서 언급한다.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처럼 구약을 통해서 성령은 예언의 은사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극적이며(dramatic) 강력한 방법으로 말하기 위해 어떤 자에게 임한다. 그리고 모세의 말은 주의 모든 백성이 오순절날에 예언하게 될 때, 그 미래의 길을 그들에게 지적해 주고 있다.

A. Noordtij는 그의 민수기 주석(Het Boek Numeri, 1941)에서 두 종류의 예언, 즉 “무아경의” 예언과 보다 영구적인 예언으로 구별한다. 그는 민수기 11:25을 첫째 유형의 예라고 부른다.

…(이 경우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의 경우에서 보는 일종의 활동을 가지지만,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사울이 경험한 것과 같이, 모든 종류의 영으로 충만된 말씀, 즉 전에는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했던 전능한 성령에 의해서 조정된 말씀, 곧 보이는 증거로부터의 외침과 동행하는 성령 가운데의 무아경(geestesvervoering)이다. 70인 장로가 신적인 생명력(goddelijke levenskracht)을 자신들에게 보유함으로, 모세를 따라 순종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Noordtij는 이것을 생각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영구적인 것은 예언하는 능력이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는 데 모세를 조력하기 위한 특별한 지혜를 소유하는 것임을 깨닫는 일이 흥미롭다.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이다.

W. H. Gispen은 그의 민수기 주석(Het Boek Numeri, 1959)에서 이

70인 장로들의 예언은 “무아경적”이었다고 확신하지 않는다(p. 183). 중요한 것은 이 일시적인 예언의 은사가 “성령께서 70인에게 임하였음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Gispen은 29절을 가지고 모세에 관해 한층 더 주석한다.

그때에 모든 백성은 그들이 되어야만 하는 그 무엇, 즉 예언자들의 백성, 여호와의 영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모세의 소원 성취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때에 충분히 나타난다…우리는 여기에서 구약성경의 중고한 주안점 중의 하나를 본다. 모세는 자신을 무시한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통치(heerschappij)이며, 여호와의 백성의 마음속에 성령의 내주하심이고, 모세에 의해서가 아닌 여호와 자신에 의해서 인도되고 교육받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모세가 바라던 것은 모세보다 더 큰 자(참조 히 3:1-6)인 새 언약의 중개자에 의해서 실현되었다(참조, 행 2:33; 벤전 2:9; 계 1:6). 그렇다. 그 그리스도가 그의 영이신 여호와의 영을 모든 민족으로부터 모여진 여호와의 백성 위에 두셨다. 그 성취는 희망을 훨씬 초과한다….(p. 185)

④ 내주자 그리고 성결케 하시는 자로서의 성령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주하시며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특별한 직임자들(왕, 제사장, 사사 등)을 준비하는데 있어서의 성령의 사역을 간과하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그 안에 계시기까지 하는 성령의 존재하심에 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본문을 적어 보자.

느헤미야 9:19, 20: 주께서는 연하여 궁홀을 베푸사 저희(이스라엘)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춰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werucheka hattobah natatta)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편 51 : 10, 11 :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we ruach gadesheka al-tiqqach mimmenni)

이사야 63 : 11 :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 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ayyeh hashsham beqirbo eth-ruach qadsho)

이 본문들에서, 성령께서 단순히 창조자와 창조하는 영으로서 그리고 예언의 영으로서만 아니라, 특별히 지키시는 임재의 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성령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해”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느 9 : 20).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특별한 지도자들(모세, 70인 장로)에게 주어진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안점은 성령께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백성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그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와 정결을 구하며(7절), 성령께서 그와 함께 있을 것도 구하고 있다(11절). 그러나 이 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일반적인 고백과 탄원으로서 의도되고 있다. 시편은 모두가 진실된 하나님을 숭배하는 모든 자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으로 의도되어진다. 그리고 시편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와 숭배와 고백과 회개를 말씀 가운데로 이끌기 위하여 특별한 성가대에 의하여 성전에서 계속적으로 불리워진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기도하고 노래하면서 죄를 깊이 뉘우치는 모든 신자는 이렇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11절). 성령의 임재는 여기에 전제되고 있다. 성령은 특별한 방법으로 신실한 자에게 거하신다. 죄는 내주하시는 이 임재에 대한 위협이다.

이사야 63 : 11에서도 역시 우리는 출애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beqirbo) 거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본다. 성령은 하늘 멀리에 있지 않다 (물론 그는 그곳에도 역시 계신다). 그는 특별한 방법, 즉 세상의 다른 국가와 함께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의 백성과 함께 한다. 그는 그 백성이

약속된 땅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 인도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은혜로써 임재한다. 여기에 고려하는 것은 성막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령에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며, 또는 적어도 그에게 그 백성이 신실할 때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다.

성령은 구약에서 그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거하셨다. 이것이 성결케 하심과 성결케 하시는 그의 사역이다. 시편 51 : 11에서 성령이 “거룩한” 영이라는 사실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시 안에서 거룩성에 대한 그 자신의 부족함과 새롭게 함과 성결에 대한 그 자신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것이 이스라엘을, 성령과 이스라엘 사이의 차이를 크게 만드는 바 그 “부정한” 백성(호 2 : 2-13)이라고 반복해서 부르는 사실일 것이다. 구약에서 거듭하여 이 점이 이스라엘 중에서 소수만이 참으로 신실하며 순종적임을 나타낸다. 대다수는 언약을 파괴한 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하다.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하나(느 9 : 20 ; 시 51 : 11 ; 사 63 : 11), 그들의 죄악은 성령을 떠나도록 했다. 오직 미래에서만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유배에서 귀환에 관한, 새 생명에 관한, 성결과 구원에 관한 희망이다. 예로서 이것은 에스겔의 메시지인데, 이스라엘의 미래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의 새로워짐과 성결이다.

에스겔 11 : 17, 19, 20 :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17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또는, 성령?)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19절),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20절)

에스겔 36 : 24-28 :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방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24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25절) 또 새 영(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26절, weeth—ruchi etten beqirbekem),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27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28절)

미래에 있어서 내주하시는 성령은 죽은 자로부터의 생명을 의미한다.

에스겔 37 : 13, 14 :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13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14절)

D. 새 언약시대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

구약에서 주님의 오는 “날”(Yom)은 심판과 구원의 날이다. 성령의 오심이 이 오는 시대의 구속의 영상들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그는 그의 백성에게 거주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언의 은사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과 그의 종, 즉 메시야적 왕께 복종시키기 위해서 오신다.

오시는 메시야 자신은 그의 특별한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성령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 있다. 이사야서의 “종”에 관한 부분에서 (적어도 40~53장) 오시는 종에게 성령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

“내가 불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으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사 42 : 1). 그리고 이 오시는 메시야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받는다. 메시야는 자신이 “백성에게 언약”, “이방인에게 빛”이다(사 42 : 6).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적 백성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대저 내가 갈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후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사 44 : 3)

이 성령으로 부으심은 새롭고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 됨의 주요한

축복 중의 하나이다. 수난당하심으로 메시야는 그들을 구원한다(사 53 : 1–11). 그는 그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만드시는 한 부분으로서 (사 55 : 3),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실 것이다(사 53 : 11). 그러나 의롭게 된 모든 자들은 그들의 메시야로부터 성령을 역시 받게 될 것이다!

새 언약시대에 있어서 성령의 오심은 그가 구약에서 실행한 모든 사역을 성취하는 때가 될 것이다. 구약에 있어서 성령은 진술된 모든 예언 이면에 있는 능력이다. 민수기 11 : 25, 29을 생각하면, 그곳에는 이스라엘의 70인 장로가 성령을 받고 그 결과로 예언을 한다. 이것은 성령의 새로운 시대의 표가 될 것이다. 성령이 태초에 창조하셨고(창 1 : 2), 끊임없이 생명을 창조하신 것처럼(시 104 : 30), 그렇게 성령은 이스라엘을 재창조하시고 사방에서 새 생명을 가져다 주시려고 오실 것이다.(겔 37 : 13, 14)

예언과 지혜의 영(능력과 계시를 보여주는)은 또한 새 생명과 구원의 성령이다. 새 시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선포와 새로운 지혜는 성화시키고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한다(겔 36 : 21–28). 오시는 메시야의 새 시대에 있어서, 철저한 새로워짐에 대한 사상은 그 때에 성령의 오심을 강조하는 모든 예언들을 차별한다(dominate). 신명기 30 : 6에서 예언된 마음의 할례는 새 언약시대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에 기초적인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비록 “성령”이란 말이 예레미야서에서 사용되어지지 않으나(어떤 이유 때문에, 아마도 거짓 예언자들의 무아경의 주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성령의 사역은 예레미야 31 : 33의 “새 언약”的 구절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인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에스겔 36장과 편적인 것이 아주 분명하다. 비록 성령이 구약 안에서 여러 방법으로 일했지만,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봉사하는데 얼마나 부족했는가를 뼈아프게 깨닫는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오시는 메시야와 결합되어 있는 미래에 있어서의 거대한 변화를 기대한다. 새 언약은 이스라엘의 귀환과 이방인의 회집과 더불어 오고 있으며, 새로운 성령의 부으심이 기대되어진다. 온 세계적인 규모로서 “중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요엘 2:28-32에 있는 요엘의 메시지이다.(히브리 성경은 3:1-5)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shaphak)…그 날에 내가 나의 신을 부어 줄 것이니, 젊은이와 늙은이, 남자와 여자가 예언할 것이다.”

그 결과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32절)이다. 오시는 예언의 성령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주하시며 새 생명을 주실 성령이다.

2) 성령으로의 세례 : 신약에 있어서 그리고 오늘날을 위한 이것의 의미

A. 신약에 있어서

신약에 있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물세례를 가리키는 바 하나님의 회개에 대한 촉구이다(마 3:1, 5와 같은 예들). 오시는 메시야는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줄” 것이다(마 3:11과 같은 예들). 이 점에서 요한은 함께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으로(7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모든 지방의 사람들에게(5절) 전파하고 있다. 요한이 11절에서 “너희”를 말할 때에, 그는 “너희”를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들로 제한할 수 없다. 그들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요한은 의미한다. 즉 마치 물 세례가 회개하는 모든 자를 위한 것과 같이, 성령과 불로써 오는 세례

는 오시는 구세주를 믿는 모든 자를 위한 것이다. 그 대신에 깨끗케 하며 정결케 하는 이 세례를 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인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것이다(12절). 성령은 그의 정화하심과 그의 심판에 있어서 거룩하시다.(칼빈 주석, H. 바링크의 개혁주의 교의학 3, 4권에서의 설명, I. H. 마샬의 여러 작품 가운데서의 토론, 특별히 J. DG Dunn의 성령으로의 세례, *Baptism in the Holy Spirit*, 1970을 보라)

여기에는 오직 두 가지의 대안이 분명하게 제시된다.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 구원얻게 되든지, 아니면 그것을 받지 못하여 영원토록 저주를 당하게 된다. 이것은 분명히 요한이 예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자라고 외치는 구원 / 저주의 본문이다.

요한복음은 3:3, 7에서, 성령의 사역은 “위로부터 날”(“중생”이 더 바람직하다)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게” 되는 것인데(5, 9절), 이는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들어가는 데 필요한 것이다(3, 5절). 확신케 되는 것은 인자에 대한 미래의 신앙임을 우리가 주목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14, 15절)

이 생명을 창조하는 행위(십자기에 못박힘)는 생명을 창조하는 성령의 근원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못박힘과 부활 후에 오시게 된다.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하여 진실하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7:38, 39이다.

“나를 믿는 자는(믿음의 행위를 의미, J. M. B)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오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성령은 생수로서 주어지게 되어 있다(내게로 와서 마셔라 37절). 물론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어떤 의미에서 성령을 받았다. 마치 구약의 모든 믿는 자가 성령에 의해서 중생되었고 성화되었던 것처럼.

그러나 오직 예수의 부활 후에 성령을 받는 것이 이사야, 에스겔, 예레

미야와 요엘을 성취하는 새 언약의 경험이다. 성령의 내주하심(indwelling), “받는 것”(receiving)은 오순절 전과 후에 있어서 다르다.

B. 사도행전에 있는 성령 세례, 그리고 오늘날을 위한 그것의 의미

오순절은 제일 되는 구속적-역사적 사건이다. 이것은 일련의 성육, 십자가에 못박힘, 부활, 승천…오순절의 한 부분이라는 의미이다. 이 사건들은 세상을 위하여 구속 계획의 성취로서 첫째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사건들은 유일하며 반복되지 않는다.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오직 하나의 십자가 못박힘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 언약 사도적 교회를 수립하기 위해 오직 하나의 성령을 보내심이 있었다. 바람과 같은 강한 소리의 현상과 불의 혀 같은 것(행 2:2, 3)은 오순절의 유일성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반복되어지지 않는다. 성령은 사도들과 함께, 그들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땅 끝까지 보내려고 오셨다(행 1:8). 사도적 교회는 오직 한 번에 세워질 수 있다.

하지만 사도들 역시 우리처럼 믿는 자들이다. 성령은 그들을 충만케 하려고 그들을 하나님의 한 새로운 백성의 부분으로 만들기 위해 오셨는데,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백성을 하늘로부터 형성하고 있었다.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기 위해,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만들기 위해, 그들을 그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왔다. 이 의미에 있어서 오순절 날 믿는 자들이 영광받으신 예수로부터 성령을 받았다(요 7:39). 그에 대한 그들의 신앙에 부응하여 그리스도는 약속한 성령을 보냈다. 오순절 후에도 역시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그리고 물로 세례 받게 되는 부르심과 직접적인 관계로써 예외없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는다.

이 세 가지 사건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성령을 받음, 그리고 물세례(행 3:28)는 사도행전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생활 가운데 기본적인 초보의 사건들이다. 그것들은 새 언약의 공동체로 향한 입문의 커다란

삼각관계를 만든다. 오순절의 성령은 단번에 그가 사도들을 그들의 임무와 가르치는 근본적인 역할 중에 세우셨으므로,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 믿는 자들을 충만케 하시려 “내려 오시는” 것을 계속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성령을 받음 사이에, 경우에 따른 연대기적 차이(행 8장)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불변하는 양상인데, 즉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항상 예외없이 성령을 받는다. 이 성령을 받는 경험은 복음서에 예언된 성령으로의 세례이다. 세례 요한이 그에게 오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위한 회개로써 세례를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성령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자에게 세례를 준다.

오순절은 이처럼 유일하다. 그러나 이것의 유일성 안에는 모든 기독인들이 함께 취하는 요소가 있는데, 즉 성령으로의 세례이다.

이것을 말하면서, 나는 성령으로의 세례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오직 오순절에만 적용된다고 한 고신교수회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위원회 보고서는 예로서 사도행전 10:44에서 성령을 받는 것(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성령으로의 세례가 아니라고 한다. 나는 그것이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믿는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을 사도행전 11:16, 17에서 묘사한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ten isten dorean)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판대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것과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성령을 받는 것을 분명하게 같은 것으로 하고 있다. 같은 것이 “성령으로의 세례”란 용어에서 정확하게 보여진다. 이 견해를 주장하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주석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 칼빈 : 마태복음 3:11의 주석에서 그는 “성령으로의 세례”를 중생과 동일시하는데, 그는 이 중생을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영혼의 초기 성화와 새로워짐, 성결케 함으로 생각한다. 사도행전 11:16에 관한 그의 주석

에서 그는 이러한 설명을 계속한다. 칼빈은 요한의 세례를 요한복음 3장에서 기독인의 물세례와 연결한다. 그리고 사도행전 11:16을 주석하는데,

(교회의 성직자들이) 물의 외적인 표(sign)를 주지만 그(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표의 효력을 이루시고 이행하신다.

다시 16세기의 모든 개혁주의 고백들과 같이 칼빈도 중생을 넓은 의미에서 생각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E. Haenchen : 사도행전에 대한 이 자유주의의 주석(영역 1971. 독일어 14판으로부터 1965)에서 11:17을 주석하는데,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성령의 임하심을 “성령 세례”(Spirit-baptism)라 부른다.(p. 355)

— G. W. H. Lampe : 성경주해사전(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1962)의 “성령”에 관한 그의 기사에서 사도행전 10:44-48을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이방인의 오순절이며(참조, 11:15-17; 15:8, 9), 이방인의 허용에 대한 논쟁의 과정에서 반복하여 주의를 이끄는 사실이다.”(p. 635)

— F. F. Bruce : (사도행전에 관한 주석 영문판, 1954)에서 그는 사도행전 11:15-17에 대해서 말한다. “제자들에게 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인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오순절날에 신속하게 성취되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보았으며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이 그의 정신을 새롭게 했으며, 그는 이제 그 말씀이 새로이 성취되었음을 깨달았다.”(p. 236)

— F. W. Grosheide : 그의 마태복음 주석(Het Heilige Evangelie volgens Mattheus, 1954)에서 마태복음 3:11에 대해서 말한다. “우리는 오순절을 제외하고서 생각하기 원치 않는다…주된 요점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포함한 모든 세례에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점이다.(Wij willen daarbij niet uitsleitend denken aan het Pinksterfeest…Hoofzaak

is, dat Jezus bij alle dopen, ook bij dat van Joh. den Geest zal geven)

나의 견해로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게 됨”은 오순절에서, 사도행전의 다른 부분에서 그리고 모든 기독인의 생애에 있는 성령의 오심에 적용된다. 사도행전에서 이 사건은 종종 장관적(spectacular)이며, 기적적인 표적을 동반한다.

우리의 세대에서는 기적적인 표적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신망하는 모든 자는 역시 성령을 받았으며,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았다(고전 12:13). 그리스도를 신앙함에 부응하여, 그는 항상 그의 영을 그의 택자, 새 언약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와 거주하도록 보내신다(요 14:16-18). 오시는 성령은 이 세대의 종말까지 계속적이다.